

「하나님의 정치 사람의 정치」

the Politics of God and the Politics of Man

(Jacques Ellul 저 / 김희건 역 / 서울: 두란노서원 1987)

윤용규

이 책은 ‘열왕기하’에 대한 묵상을 정리한 것이다. 열왕기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위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갈등과 그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기사이다.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 이스라엘 왕국의 퇴락현상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러나 한 나라의 정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치와 임재와 활동을 조명한다. 이는 ‘정치’에 대한 저자의 정의에서 추론된다. 그는 정치에 관하여 “인간의 자율성과 그의 반역과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인간의 교만한 시도를 확인해 주는 영역”이라고 함으로써, 이 책에서 사용하는 ‘정치’라는 용어의 의미폭이 포

팔적임을 말해 주고 있다. 즉 “.....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인간의 교만한 시도를 확인해 주는 영역”과 무관한 인간의 행위영역이 어디 있는가?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가운데, 나아만, 요람, 하사엘, 예후, 아하스, 답사게, 히스기야 등 당시 한 나라의 정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을 고찰하고 있는 이 책의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 또는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와 인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엘루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의 계획 성취에 쓰임받는 자는 누구이며 이들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내려지나? 그리고 이 물음들에 대해 저자는 ‘인간 행동의 무용성’이라는 도발적인 문제 제기와 그 속에 담긴 대담으로 독자들을 놀라게 한다. 열왕기서의 이 질문들은 오늘 우리의 문제이다.

1.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중재를 통해서 전달되고 시행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독립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언제나 자유인 것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의 독립은 엄격한 의미에서 죄의 종된 상태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노예이므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통제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이런 여건들 속에서 그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놓아 두신다(이스라엘의 군주제도 수립 과정을 보라). 이것이 열왕기하에서 모든 사건들을 실제적으로 기술해 나가는 조건들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를 거절하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의심과 인간의 지혜 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려줄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거절한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부의 결정권을 허락하셨으므로 그 결정을 받아들이신다. 때문에 요람이 자신의 분별력을 따라 판단하면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을 때 그는 이 모든 사

건 속에서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것이 현세적 거역의 의미이다. 현세적 거역은 관망자에게 하나의 표징과 경고의 의미가 있다. 이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자유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결정과 인간의 결정 사이의 관계성은 이렇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적 자유 안에서 구원의 때와 방법을 결정하신다. 기도도, 왕의 회개도 그분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순간과 방법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절대적 자유에 대한 비난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는다(예컨대 욥의 경우). 절망 가운데 빠져 전혀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데 선지자는 다만 믿음만을 요구한다. 인간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유 앞에, 어떤 표적(sign) 없이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표적도 없다).

2. 예후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나 정죄된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예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은 아합을 정죄하셨고 그 집행자로 예후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예후의 행동을 인정하신다(왕하 10:30). 그러나 그 인정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엘리야,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모세의 경우에 내포된 것과 같은 뛰어난 관계를, 즉 동일한 신뢰와 아버지다운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이 인간에 의해서 수행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내와 기쁨을 찾을 수 없다. 예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냉담하고 소원하다: 네 자손이 4대에 걸쳐 다스릴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한 것과 얼마나 다른가: 네 자손이 영원히 다스리리라. 모세의 계명도 생각난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 20:5, 6).

예후의 후손들이 징계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

님에게 진실하고 열심을 가지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일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가? '학살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것은 아니다. 다윗도 파괴자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당하게 보이는 결정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 빠졌다는데 있다.

'여로보암의 죄'란 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이 신생국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인위적인 종교의식을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열을 지속시키려 한 행위를 말한다(왕상 12:25-33 참조).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참되신 하나님의 계시를 통제한 것이다. 이 죄는 이스라엘의 열왕과 아하스에 의해 반복되는데, 이는 계속된 정치적 필요의 결과이다. 예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조성하려고 시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들었다(왕하 10:10). 하나님의 결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나머지, 그는 시작한 이도 또한 그것을 운영하는 이도 자기가 아니라는 중대한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인위적 개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인가? 우리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종속시킬 것인가? 예수조차도 이 문제로 시험을 받았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마 4:3 이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며,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브라함을 사라가 어머니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인간적 수단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해 오셨던가! 만나의 저장 금지, 기드온의 삼백 명 용사!, "돈을 지니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막 6:8, 9; 눅 9:3; 10:4).

이는 잔인한 딜레마이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고 옳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예후가 빚나갔다(예후의 혼동). 그에게 현존의 하나님은 없다. 어디 예후 뿐인가?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의해 침공을 받고 있는 아하스는 군주

권과 국가 방비의 일념에서 하나님의 말씀(사 7:1-9)을 듣지 않는다(왕하 16). 그 대신 앓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위한 준비로 돈과 선물을 조공할 뿐만 아니라 앓수르의 상징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솔로몬의 성전에 머물렀던 성령을 실용주의적인 종교로 바꾸어버렸다. 그는 진리 안에서의 대가와 사랑 안에서의 대가와 같은, 치루지 않으면 안될 영적인 대가를 무시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변형시켰고 일단 성공한다. 아하스는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효율성을 추구하였고 그 점에서 성공하였다. 성공을 향한 관심과 정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한 점에서 아하스도 여로보암의 죄를 범한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일단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거나 하나님이 찾는 목적을 지향하기만 하면 언제나 선하다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사고는 오류이다. 수단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커다란 책임이다. 사람이 자신의 행동분야가 하나님에 의해 부여되고 펼쳐진 것임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그릇되고 무절제하고 파괴적일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는 그의 참된 책임이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부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리와 진리 안에서 생각할 때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통찰이 따를 것이다: 하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 유다도 존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즉 하나님의 예언(뜻)을 행하는데 사용된다고 하여 모든 수단이 선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때문에 이에 대항해서는 안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얻는다. 하나님의 수단(채찍; 랍사게, 히틀러)을 이용하는 것은 그의 백성이 진리와 겸손과 거룩함과 순전함에서 진실로 그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데 있다.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나 교회와 관련 있는 것이지, 국가나 자본주의에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수락되었다면, 이제 믿음으로 그 자신을 하나님의 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에 대항하여 행동할 필요가 있다. 도끼

가 벌목인의 손 안에 있을 때 자고(自高)할 수 있는가?(사 10:15)

3. 성령(聖靈)만이 효과적으로 사역한다. 성령은 개인생활과 역사에서 사건과 상황을 조성하고 연쇄적인 행동들을 주도한다.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유물로 삼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서 성령의 간섭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성령을 인식함으로 마치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또는 수단만이 최고이므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식으로 효율을 조사하는 일은 피하게 된다. 수단은 나름대로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수단을 찾는 일은 항상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바로의 마술사도 모세와 같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 때문에 그 나름대로 효율성을 지녔다고 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눈에 합법적이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어떤 수단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크리스찬의 행동의 효과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그것은 목적에 의해 지배되는 행동이어야 한다. 오늘날 성취되어야 할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다. 그것이 행복이든 과학이든 예술이든 또는 정의나 자유나 평화이든 간에 다른 모든 것은 '종속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아멘! 수단의 선택은 이런 논리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수단은 목적과 바라는 결과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들은 일치되고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복음은 폭력이나 선전에 의해 전달될 수 없다. 만약 이런 수단이 선택된다면 약간의 성공은 거둘지 모르나, 그것은 복음의 승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수단에 한해서만 참된 효과와 능력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수단과 목적 사이의 상호소통). 그런데 목적은 이미 세상에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 행동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의 수단을 자극하고 충동질하면서 은밀한 세력으로 이미 여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주어진 사실로서 이 목적에 순종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소망(하나님 나라의 도래)은 궁극적인 미래를 존재케 하고 활동케 하는 현실적인 실상이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으로 지상에 계셨던 때를 현실화하는 것처럼 소망은 마지막 때를 현실화한다. 소망은 능력이다. 이미 통치하고 활동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임재이다.

효율성의 면에서 수많은 대리자와 사역자들의 끊임없이 추구된 혁신과 갱신과 인내가 중요하다. 어떤 행동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나 한 가지 수단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다. 바울이 말한대로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후처럼 성취를 서둘러서도 안되며, 그 결과를 자기 소유로 삼아서도 안되며,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을 탈취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명백하거나 눈에 보이는 결과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멈추거나 그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기도와 효과적 인 행동에서 '지속성'이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바울과 아볼로의 예). 따라서 모든 크리스찬은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크리스찬이 이를 중단할 때 그는 이전의 크리스찬이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무효화 시킨다.

세상 권력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에게 진실한 행동은 종종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나 이는 우리 행동이 진실로 비효과적이란 뜻이 아니다. 진실의 관점에서 특정된 효능이란, 성공의 관점에서 본 효능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관점과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효능이라 불리는 이런 성공(아합, 아하스)들은 세상이나 사회에 의해 어떤 행동이나 수단에게 부여하는 승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일단의 사람들이나 사회단체의 追認일 뿐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에 따라 효율적이 될 때마다, 사회가 우리 행동을 흡수하고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행동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우리가 찾는 효능이란 세상이나 사회의 철저한 변혁을 가져오는 효능이다.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부여된 효능 안에서는 세상의 승인을 확고히 하거나 세상이 우리에게 일치되기를 결

코 바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을 향하여 굴함이 없는 질문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세상이 이들에게 동화될 수 없는 한도 내에서만 효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것은 '봉사'나 '사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절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명이다. 즉 효능이 드러나는 것은 동화되지 않는 정도에 있다. 힘에 의해 교회를 변혁시키려는 것, 예컨대 중세기의 사회를 교회에 일치시키려는 것은 아합의 행동과 상통한다. 로마의 기독교 국교화도 그 예이다. 효능을 보증하는 유일한 것은 동화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홀로 담당할 수 없는 소명이다. 인간은 '관계' 안에서만 이 소명을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은 '전적 타자(全的 他者, the wholly other)'의 육화(肉化)된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우리의 고집과 세상적인 효능과 우리의 의도로 인해 '전적 타자'가 방해되지 않도록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결단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의 수단은 세상의 수단이요, 그것들은 항상 어느 정도 세상에 관여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장악한다(세상의 흡인력!). 우리 행동의 중심부에 전적 타자가 존재할 때에야 사회적 세력에 의해 동화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만이 사회와 우리 자신의 완력(腕力)에서 벗어날 수 있다.

4. 랍사게의 연설(왕하 18:17-35)은 정치적 세상이 교회를 대하여 말할 수 있는 바를 정확히 말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과 정치와의 관계에 새 빛을 던져준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보잘것 없는 동맹관계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이사야가 강력히 경고하였다(사 31:1, 3). 랍사게도 그 동맹관계의 그릇됨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앗수르가 아니라 애굽을 의지한 것은 잘못임) 힐난했다. 랍사게의 연설은 무서울 정도로 현대적이다. 또 계속 반복되고 있다. "만일 네가 옳되려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마 4:9).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약속이 얼마나 커다란 효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을 거둔다. 권력을 위해서든 행복을 위해서든 인간은 항상 자기 주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때 히스기야는 주님만이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교회가 불신자들이나 대적들의 비판과 공격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런 차원과 범위 내에서다. 히스기야가 지닌 영적 자질과 진리는 정치적인 문제 뒤에 숨겨진 진정한 문제를 보게 했다: “누가 참으로 주이신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술, 행복, 국가, 돈, 공산주의 등과 같은 산헤립이 주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마 6:24). 히스기야는 앗수르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견책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선전적인 연설에 대해 백성들은 침묵을 지킨다. 세상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공격할 때, 즉 정치가 절대적인 주장을 할 때, 정치적 차원의 답변을 할 수 없다.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의 절대적 현시(顯示) 뿐이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논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대화는 그 자체에 무슨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크리스찬의 생활에서 최상의 표현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유일한 선택은 침묵이고, 회개와 기도이다.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전 3:7).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피하고 이사야에게 사자들을 보낸다(이 점이 예후나 아하스와 다르다). 현실적인(막시스트,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태도를 매우 약하고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 볼 수 있다(그런 의미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 판단 앞에서 성경은 다르게 말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 히스기야는 앗수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것을 간파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욕한 사건으로 이미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 대처할 일이 아니기에, ‘정치적인 것을 중지’하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다. 히스기야는 직접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자신의 승리나 앗수르의 패망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한다: “여호와와 천하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왕하 19:15). 하나님

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의 영예에 깨쳐진 조롱에 대한 유일한 답변이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히스기야가 받은 위로는 “남은 자”라는 이름 아래 그 백성과 하나님 간의 계약 갱신이다.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유다에는 계약된 백성이 남아 있고 남은 자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 교회가 쇠하여지고 두려워하는 때에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마 16:18). 그러나 이스라엘과 교회는 이것이 그 자신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위하여 자신에게서 하나님됨을 벗어버렸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은, 결국 역사의 목적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인간의 신중한 행동에 의해서 도달될 수 있다.

5. 모든 일이 잘되어 나갈 때, 우리에게 유일한 선택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표징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 평화의 휴식은 우리에게 더 큰 경각심과 더 큰 사랑을 향한 경고이어야 한다.

6.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도록 사람의 계획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지극한 겸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 행동의 무용함과 허무”의 깊은 감정에 빠진다. 결국 그 목표가 성취될 것이며,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일진대 또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획득된 것일진대, 이 모든 소요는 어떤 종국을 향하고 있으며 이 끊임없는 전쟁과 국가들과 제국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행진과 교회의 사소한 일상적 국면들은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극단적인 무용의 감

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것은 이미 에덴동산에서 아담의 기능의 무용함을 대면하는 여섯째 날부터 시작된다. 야웨는 에덴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아담을 그 곳에 데려다 두었다. 그러나 경작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미 셋째 날 하나님은 식물과 나무들이 스스로 번식하도록 명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다면 경작하고 보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소용없는 수고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사고는 하나님의 율법과 기도, 지혜와 설교 등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도 부질없는 것이다.”

무용함에 대한 이 당혹스러움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일신(一新)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 말씀(누가복음 17:10)에는 두 요소가 있다. 첫째는 “이와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의 점이다. 즉 먼저 명령받은 것을 행해야 한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한 전적인 무익함의 느낌과 확신이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미리 무용하다고 발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사역을 조소하는 것이 된다. 두 번째 점은 무용함의 판단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행한 일에 그렇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존재는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지 않는다. 이 때 오히려 그분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 25:21)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급하게 무용의 판단을 내려 스스로 무력해지고 낙심한다면,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완전히 결여된다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눅 6:24),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모든 것이 무용하다는 이 고백이 곧 “그렇다면 모든 것이 허무하다”(전 1:2)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이를 갈게 볼 때 유용성 추구로 흐르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봉사하려는 마음보다도 유용한 것의 환상에 지배되어 세상의 효용성과 결과의 중요성에 의해 쫓겨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쓸모있다는 말인가? 그건 이렇다. 역설적이긴 하나

이런 행동들이 무용하고 스스로 그 목적과 효력을 이룰 수 없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은 '은혜'의 증거들인 한편 동시에 '자유'의 표현이 된다. 오히려 유용함과 효력의 추구에 지배되는 것이야말로 현실 세계의 엄격한 결정력에 종속되는 일인 것이다. 결과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사의 증인이 되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만약 우리가 기꺼이 무가치하고 무익한 종이 되려 할 때, 우리의 일은 진실로 우리를 먼저 아낌없이 사랑하신 그분의 영광에 기여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사랑이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기에 우리 일의 출발점이 있다. 우리의 행함도 다른 어떤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 행동의 자유도 어떤 유용성이나 효용성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유의 한 가지 비유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행동들이 무용하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 불필요하고 효과 없고 소용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 첫 신호이자 마지막 신호이다. 열왕기하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위해 각자 제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였다. 어느 누구도 근본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각자 나름대로 자유로웠다. 사실 열왕기하의 사건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또 이 사람들이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해도 변화된 것은 없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처럼 성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결핍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자유다: 하나님의 자유 안에 있는 인간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의 반영으로서 인간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자유; 하나님께 자유로이 순종하는 인간의 자유; 열왕기하의 비극적 정치와 종교에서 볼 수 있었던듯이 어린 아이와 같은 행동과 기도와 증거 안에서 유일하게 표현되는 인간의 자유인 것이다.